

국내 물리치료사의 현황분석과 그 효율적 활용방안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지환, 정낙수, 송영화

ABSTRACT

Analysis of the Present Status on Korean Physical Therapists and Its Plan

Ji-Whan Park, Nack-Su Chung, Young-Wha Song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Yonsei University and Manag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general problems in Korean physical therapists and to make desirable plans of it through the analysis of the status on Korean physical therapists, 1989.

Key words : Korea, Physical Therapists, Status

차 례

- I. 서 론
- II. 연구목적
- III. 연구방법
 - 1. 연구의 틀
 - 2. 조사방법
- IV. 결 과
 - 1. 우리나라 물리치료사의 양성현황
 - 2. 우리나라 물리치료사의 취업실태
- V. 고 찰
 - 1. 문제점 도출
 - 2. 활용방안에 대한 대안
- VI. 결 론

심리적, 사회적, 직업적 및 경제적 유용성을 회복시키는 일이다.”라고 1941년 미국 재활심리위원회에서 정의 하였다.

재활치료는 의사를 중심으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간호사, 임상심리학자, 사회사업가, 직업재활사, 특수교사, 의제제작자, 의용공학가, 오락 및 음악치료사, 종교인 등 여러 전문분야의 공동작업으로 이루어진다.

그 중 물리치료는 신체의 운동장애를 예방하고 치료를 목적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물질 중에서 열, 광선, 전기, 물과 같은 물질에너지와 운동원리나 법칙을 이용한 과학적 원리를 인간에게 적용 치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물리치료사는 장애나 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를 평가하고 열, 냉, 전기, 물, 운동학적 원리를 이용한 치료로 환자의 근력강화, 지구력, 협동성, 관절가동범위의 증진, 동통을 감소시키는 업무에 종사한다.

I. 서 론

“재활이란 가능한 최대한도까지 장애자의 신체적, 우리나라의 서구식 물리치료는 1949년 미국인 선교

사 Thelma B. Maw가 세브란스 병원에 부임하면서 부터 시작되었으며, 국내 물리치료사는 1954년 군의 학교와 동래 국립재활원에서 3개월 과정과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습과정을 이수하면서 배출되기 시작하였고, 최초의 물리치료사 교육기관은 1963년 우석대학교 병설 의학기술학과 초급대학 과정이 설립되면서 시작되었다.

앞으로 국민들의 의식수준과 소득증대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제 6차 사회경제개발 5개년 계획 중 의료보장제도의 확립 등으로 보건의료 서비스의 역할이 중요시 되어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일환을 담당하고 있는 물리치료사의 현황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도출하고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물리치료사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목적

우리나라 물리치료사의 양성 및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보건 인력수급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활용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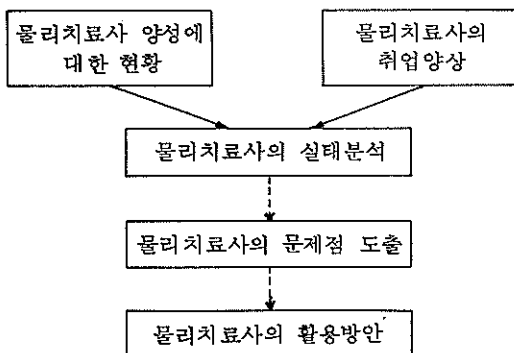
첫째, 물리치료사의 공급측면에서 교육기관 및 수습기관에서 배출되는 인원수와 면허취득 및 등록 인원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한다.

둘째, 물리치료사의 취업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인력수급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한다.

셋째, 위 자료들의 분석을 통하여 물리치료사의 수요와 공급간의 불균형에 따른 대안을 제시한다.

Ⅲ. 연구방법

1. 조사의 틀



2. 조사방법

1) 조사자료

국내 물리치료사의 양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문교부 통계연감, 대한 물리치료사협회 면허등록 카드, 물리치료과가 개설된 14개 대학, 보건통계연보, 국립보건원의 관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취업실태는 대한 물리치료사협회 중앙회 및 각 시, 도, 지부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2) 조사대상

1989년 8월 현재 보건사회부에 등록되어 있는 면허번호 1번부터 5,694번까지의 회원과 협회에 등록된 2,84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Ⅳ. 결 과

1. 국내 물리치료사의 양성현황

1) 우리나라 물리치료사의 교육현황

국내 물리치료사 교육기관으로는 1989년 현재 문교부장관이 인가한 12개의 전문대학과 2개의 4년제 대학에 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각 교육기관의 설립년도와 소재지별로 구분하면 1963년 고려대학교 보건전문대학이 최초이며, 1979년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에 재활학과가 최초의 4년제 대학으로 설립되었다(표 1).

현재 물리치료사의 교육기관에서 배출된 총 졸업생수는 7,721명이고, 고려대학이 총 25회에 걸쳐 837명이 배출되었으나 대구보건전문대학은 총 11회에 걸쳐 1,398명이 배출되어 가장 많은 졸업생 수를 보유하고 있었고, 안동 간호보건 전문대학과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은 1988년과 1987년에 각각 신설되어 졸업생이 아직 없는 상태이다(표 2).

물리치료사 교육과정을 외국과 비교하여 보면 미국은 2년제가 55개교, 4년제가 76개교, 대학원이 30개교가 있으며, 일본은 3년제가 27개교로 나타났다(표 3).

또한 아시아 각국의 물리치료 교육년환을 살펴보면 인도네시아가 1956년에 3년제로 시작하여 가장 빨랐으며, 대만이 1967년 4년제를 시작하여 비교적 늦은 편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2년제 과정을 고수하고 있는 형편이다(표 4).

2) 물리치료사의 수습기관수

표 1. 학교별 설립년도, 입학정원 및 소재지별 분포현황(1989)

대 학 명	설립년도	입학정원	소재지
고려 대학교 보건전문대학	1963	40	서울특별시
신구 전문대학	1974	80	경 기 도
동남 보건전문대학	1976	80	경 기 도
원광 보건전문대학	1976	80	전라북도
대구 보건전문대학	1977	160(주·야간)	대구직할시
광주 보건전문대학	1978	80	광주직할시
연세 대학교 보건과학대학*	1979	40	강 원 도
지산 간호보건전문대학	1981	80	부산직할시
인천 간호보건전문대학	1982	80	인천직할시
목포 전문대학	1983	40	전라남도
김천 보건전문대학	1983	80	경상북도
영동 전문대학	1985	40	강 원 도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	1987	40	대구직할시
안동 간호보건전문대계	1988	40	경상북도
계		960명	14개 대학

전국 전문대학 물리치료과 1989

* 4년제 대학

표 2. 년도별 각 학교 물리치료과 졸업생수(1965-1989)

교 육 기 관	'65-'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계
고대 보건전문대학	307	36	34	32	37	24	32	42	45	43	35	43	43	42	42	837
신구 보건전문대학		46	59	87	112	103	118	123	117	118	111	83	83	91	91	1342
원광 보건전문대학				47	66	56	62	64	60	64	74	81	81	76	80	811
동남 보건전문대학				27	36	34	56	68	72	70	81	83	83	83	83	776
대구 보건전문대학					71	94	104	121	104	100	146	160	170	164	164	1398
광주 보건전문대학						61	59	72	64	68	69	80	80	76	76	705
지산 보건전문대학								40	72	67	72	85	80	80	81	577
연세대 재활학과									8	7	14	11	19	17	22	98
인천 간호보건전문대학										71	77	87	87	89	89	500
목포 전문대학										16	15	34	40	45	45	195
김천 보건전문대학											27	79	81	86	86	359
영동 전문대학													42	40	41	123
대구대 재활과학대학													신설	-	-	-
안동 간호전문대학													신설	-	-	-
계	307	82	93	193	322	372	431	530	542	624	721	826	889	889	900	7721

문교부 통계년감 1989

1988년 전국의 물리치료 수습기관은 보사부장관이 정한 종합병원 11개소, 병원 1개소, 군병원 1개소로 총 13개 기관이 있다. 이것은 1980년 자료에 의하면 수습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수가 28개소로 나타나 그동안 15개소가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74년 이후 수습기관에 의해 양성되는 물리치료사는 없다(표 5).

3) 물리치료사 교육기관의 교과과정

현행 국내 전문대학교 물리치료과 교과과정은 교양 교과와 전공교과로 구분되며 학점배점 기준을 교양교과 20%, 전공교과 80%로 하고 이중 전공교과의 50% 이상을 실험실습에 담당하여야 하나, 자료에 의하면 실지 전공교과의 학점에 대한 이론 대 실습비는 75.1% 대 24.9%로 실습에 대한 학점이 많이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론위주의 교육은 전문대학의 설치 목적에 반하는 것으로, 졸업생의 현장 적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거의 이론에 치중되어 있는 교과과정의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표 6).

또한 환자치료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임상실습의 경우 우리나라는 196시간으로, 세계 물리치료사연맹이 권하는 1,500시간과 일본의 1,080시간에 비하여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표 7).

4) 물리치료사의 자격제도

우리나라의 물리치료사 자격제도는 보건사회부에서 주관하며 국립보건원에서 시행하는 국가고시제로 단일종류이며 매년 1회씩 시행한다.

미국의 경우는 각 주의 물리치료사협회가 주관하여 매년 1-3회의 시험이 시행되고,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제도를 채택하여 매년 1회씩 실시하고 있다.

5) 물리치료사의 연도별 면허취득 인원수

우리나라 물리치료사 자격시험이 1965년도부터 실시되어 1989년 현재 25회가 시행되었다. 1989년 8월 현재 5,694명이 면허를 취득하였다(표 8).

2. 우리나라 물리치료사의 취업실태

1) 물리치료사의 지역별 취업인원수

대한 물리치료사협회는 전국에 14개 시도회를 갖고 있다. 1989년 8월 현재 보사부 면허취득자는 5,694명이나 그중 2,841명인 49.9%가 협회에 등록되어 있다. 서울사회에 621명이 등록되어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었고 다음으로 부산 경기 순으로 많았으며 제주도에 21명이 등록되어 가장 적은 회원은

표 3. 물리치료사의 국가별 교육 연한 및 교육기관 수(1988)

국가별	2년제	3년제	4년제	대학원
한국	12	-	2	-
미국*	55	-	76	30
일본*	-	27	-	-

* : 1980년 기준

표 4. 아시아 각국과 비교한 학제

국명	학제	비고
인도네시아	1) 1956년 3년제	공존
	2) 1964년 4년제	
필리핀	1) 1962년 4년제	공존
	2) 1978년 4년제	
대한민국	1) 1963년 2년제	공존
	2) 1978년 4년제	
태국	1) 1964년 4년제	공존
	2) 1981년 4년제	
일본	1) 1965년 3년제	공존
	2) 1981년 4년제	
대만	1) 1967년 4년제	공존
	2) 1981년 4년제	
말레이시아	1) 1975년 3년제	

대한물리치료사 협회 1988

표 5. 물리치료사의 지역별 수습기관 수(1988)

지역	종합병원	병원	군병원	계	%
서울특별시	6	-	1	7	53.8
대구직할시	2	-	-	2	15.4
광주직할시	2	-	-	2	15.4
경상남도	1	-	-	1	7.7
제주도	-	1	-	1	7.7

총 13개소

국립보건원 고시과 의료기사 명부 1988

갖고 있다. 협회에 등록된 2,841명 중 취업인원은 2,263명으로 79.7%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총 면허취득자 5,694명에 대한 실질 취업률은 39.7%에 불과하다(표 9).

2) 물리치료사의 의료기관별 취업인원수

협회에 등록된 2,841명 중 취업장소가 확인된 2,007명에 대한 남녀 비율은 남자가 949명, 여자가 1,058

표 6. 전공 교과에 대한 이론 및 실습 비교

구 분	과 목	학점 (백분율)	시간 (백분율)
	해 부 학	4.636	4.636
	생 리 학	2.910	3.000
	공중보건학	2.818	2.818
	보건법규	2.091	2.091
	기능(국소)해부학	2.182	2.273
	병 리 학	0.636	0.636
	임상운동학	2.727	2.727
	전기치료학	2.091	2.091
	근육검진학	1.455	1.455
	수치료학	1.364	1.364
	광선치료학	1.000	1.000
	운동치료학	2.545	2.545
	기능훈련	0.545	0.545
	보조기 및 의수족	2.364	2.455
	물리치료학 개론	2.818	2.818
	재활의학	2.000	2.000
	질환별 물리치료	4.727	4.727
	작업치료 및 A. D. L	0.636	0.636
이 론	정신의학	0.545	0.545
	심 리 학	0.182	0.182
	정형외과	2.818	2.818
	임상의학(I)	2.189	2.189
	임상의학(II)	1.000	1.000
	수치료 및 온열치료	0.182	0.182
	요육실기(I)	1.818	1.818
	운동치료개론	0.182	0.182
	요육실기(II)	1.727	1.727
	질환별 물리치료개론	0.182	0.182
	물 리 학	0.182	0.182
	실기교육방법론	1.182	1.182
	원서강독	0.909	1.000
	기능신경	0.273	0.273
	교육학 개론	0.909	0.909
	특수교육개론	0.364	0.364
	작업치료학	0.182	0.182
	신경외과학	0.182	0.182
	X-판독	0.091	0.091
	일반물리학	0.455	0.455
	한방의학원론	0.091	0.182
	근력검사 및 측정	0.182	0.182

	위생곤충	0.273	0.273
	기생충학	0.273	0.273
	일반미생물 화학	0.182	0.182
	기능검사 및 측정	0.273	0.273
소 계		56.373(75.1%)	56.817(64%)
실 습	임상운동학 실습	1.545	2.636
	전기치료학 실습	1.455	2.455
	근육검진학 실습	1.182	2.189
	수치료학 실습	0.636	1.182
	광선치료학 실습	0.636	1.182
	운동치료학 실습	1.818	3.273
	기능훈련실습	0.909	1.545
	보조기 및 의수족실습	1.000	1.909
	운동치료 임상실습	2.189	4.182
	전기치료 임상실습	1.182	2.364
	수치료 임상실습	0.909	1.636
	A. D. L 임상실습	0.182	0.182
	작업치료학 임상실습	0.182	0.364
	수치료 및 맛사지실습	0.545	0.727
	수치료 및 보조기실습	0.273	0.364
	기능해부학 및 실습	0.818	1.091
	기능평가 및 실습	0.273	0.364
	전기온열치료 및 임상실습	0.182	0.364
	기능평가 및 훈련 임상실습	0.182	0.364
	작업치료 및 A. D. L	0.091	0.182
	전기광선치료 임상실습	0.727	1.091
	카이로플라틱 및 실습	0.727	0.727
	A. D. L 실습	0.091	0.182
절환별 P·T임상실습	0.636	0.909	
심신관리법 및 실습	0.273	0.364	
소 계		18.634(24.9%)	32.009(36%)
총 계		75.016(100%)	88.826(100%)

전국 각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 물리치료과 1988

표 7. 물리치료과 전공과목 최저 이수시간 비교(1988)

	전공과목 최저 이수시간		
	세계물리치료사연맹안	일 본	한 국
기 초 의 학	400시간(12.7%)	315시간(13.6%)	182시간(13.9%)
임 상 의 학	270시간(8.6%)	390시간(16.0%)	320시간(24.3%)
물 리 치 료 학	980시간(31.1%)	570시간(24.2%)	616시간(46.9%)
임 상 실 습	1500시간(47.6%)	1080시간(45.9%)	196시간(14.9%)
계	3150시간(100.0%)	2355시간(100.0%)	1314시간(100.0%)

표 8. 물리치료사의 년도별 및 성별 면허취득자수 및 누계 (1989)

년도별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면허취득자		누 계
				남 자	여 자	
1965-75	504	316	62.7	112	204	316
1976	88	45	51.1	143	218	361
1977	99	45	45.5	157	249	406
1978	185	105	56.8	198	313	511
1979	277	145	52.3	264	392	656
1980	351	131	37.3	324	463	787
1981	467	178	38.1	404	561	965
1982	533	282	52.9	495	752	1247
1983	696	401	57.6	643	1005	1648
1984	757	354	46.8	785	1217	2002
1985	950	551	58.0	1006	1547	2553
1986	1072	601	56.1	1256	1898	3154
1987	1147	831	72.4	1557	2428	3985
1988	1099	836	76.1	1874	2947	4821
1989	1083	873	80.6	2175	3519	5694
계	9308명	5694명	61.2%	38.2%	61.8%	5694명

대한물리치료사협회 회원명부 1989

국립보건원 고사과 1989

표 9. 물리치료사협회의 시도회별 취업현황

(1989년 8월 현재)

지 부 별	취 업	미취업	계
서울특별시회	545	76	621
부산직할사회	288	124	412
광주직할사회	107	134	241
대구직할사회	180	1	181
경북도회	107	11	118
경기도회	167	132	299
인천직할사회	143	38	181
충청남도회	167	10	177
충청북도회	66	*	66
강원도회	64	*	64
전라북도회	171	*	171
전라남도회	107	34	141
경남도회	131	17	148
제주도회	20	1	21
계	2263명	578명	2841명

대한물리치료사협회 1989

* 충청북도, 강원도, 전라북도회 미취업자 확인 안됨

명으로 여자가 더 많았으며, 고용기관별 구분에서는 종합병원 472명(23.5%), 병원 392명(19.5%), 의원에는 936명(32.7%)으로 의원급에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내었다(표 10).

표 10. 물리치료사의 고용기관 및 성별 취업 인원수 (1988)

고용기관	남 자	여 자	계 (%)
종합병원	229	243	472(23.5%)
병원	1833	209	392(19.5%)
정형외과의원	98	182	280(14.0%)
신경외과의원	36	32	68(3.4%)
일반외과의원	114	97	211(10.5%)
기 타 의 원	194	183	377(18.8%)
교육및연구기관	41	12	53(2.6%)
재 활 원	16	47	63(3.2%)
사 회 복 지 및 특 수 교육기관	38	53	91(4.5%)
계	949	1058	2007(100%)

대한물리치료사협회 회원명부 1988.

*해외취업, 해외 이주자는 제외

의료기관에 총 취업인원수의 75.7%인 1,800명이 집중되어 있었고, 전국 정형외과 신경외과의원 1,356개소 중 겨우 348명(272개소)만이 취업하고 있다. 표 11에 의하면 물리치료가 필히 요구되는 병의원 의료기관이 1,887개소로 그중 666개소에만 근무하고 있음으로서 53.3%의 확보율을 보여주고 있다(표 11).

1988년 우리나라 전역의 총 의료기관 9,963개소 중 1,194개의 의료기관에 물리치료사 취업이 한정되어 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시에 가장 많은 209개소, 제주도에서 가장 적은 22개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취업인원수도 서울시에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표 12).

3) 물리치료사의 해외진출

1980년 물리치료사의 해외진출은 남자 29명, 여자 53명으로 총 82명이며, 미국으로 54명(65.9%)이 진출해 가장 많음을 보였다. 이중 해외 이주자가 16명(19.4%)이고 해외취업은 66명(80.6%)이다(표 13).

4) 물리치료사의 양성 및 취업현황

국내 물리치료사 양성 인원수는 1965년부터 1989년 8월 현재까지 총 5,694명이 배출되었다. 연도별 취업율은 약 40% 내외로 매년 별 차이가 없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양성인원수가 계속 증가됨으로서 비활동 회원은 포함한 미취업자가 1978년에는 198명 되던 것이 1989년 현재 3,431명으로 늘어났다(표 14).

표 11. 물리치료사를 필요로 하는 의료기관 및 취업 인원수(1988)

의료기관명	총의료기관수	취업의료기관(%)	취업인원수
종합병원	205	162(79.0)	472
병원	326	232(71.2)	392
정형외과의원	937	218(23.3)	280
신경외과의원	419	54(12.9)	68
계	1887	666(35.3%)	1,212

대한물리치료사협회 회원명부 1988.

표 12. 물리치료사의 지역 및 의료기관별 취업인원수(1988)

지역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계		
	총병원수	취업병원	취업인원	총병원수	취업병원	취업인원	총의원수	취업의원	취업인원	총병의원	취업병의원	취업인원
서울	62	49	213	92	67	160	3194	93	136	3348	209	509
부산	20	14	38	48	37	53	1113	89	99	1181	140	190
대구	6	4	22	11	11	20	590	65	68	607	82	110
인천	10	10	28	8	8	18	383	48	61	401	66	107
광주	6	4	9	19	12	18	295	45	49	320	61	76
경기	22	12	28	46	22	29	997	46	57	1065	80	114
강원	14	14	21	3	3	4	240	29	39	257	46	64
충북	6	6	7	8	8	10	235	42	51	249	56	68
충남	12	8	19	15	15	21	605	88	97	632	111	137
전북	7	7	24	5	2	2	367	74	83	379	83	109
전남	9	8	13	19	19	21	310	68	72	338	95	106
경북	10	9	14	21	10	11	391	55	59	422	74	84
경남	19	14	35	25	13	20	613	42	49	657	69	104
제주	2	1	1	6	5	5	99	16	16	107	22	22
계	205	162	472	326	232	392	9432	800	936	9963	1194	1800

대한물리치료사협회 회원명부 1988

표 13. 물리치료사의 해외취업 및 해외이주 인원수 (1980)

국가별	남자	여자	계 (%)	비고
미 국	21	33	54(65.9%)	해외이주
카 나 다	2	2	4(4.9%)	"
독 일	1	2	3(3.7%)	"
덴 마 크	1	2	3(3.7%)	"
일 본	1	-	1(1.2%)	"
대 만	1	-	1(1.2%)	"
사 우 디 아라비아	-	14	14(17.0%)	해외취업
리 비 아	2	-	2(2.4%)	"
계	29	53	82(100%)	

대한물리치료사협회 1980

* 1981년 이후 확인 불능

표 14. 물리치료사의 년도별 양성 및 취업인원수 누계 (1975-1989)

년 도	양성인원수 (누계)	취업인원수 (누계)	취업율 (%)
1975	316	120	37.9%
1976	361	142	39.3%
1977	406	160	39.4%
1978	511	213	41.7%
1979	656	276	42.1%
1980	787	325	41.3%
1981	965	*	*
1982	1247	*	*
1983	1647	*	*
1984	2002	711	35.3%
1985	2553	1020	40.0%
1986	3154	1198	38.0%
1987	3985	1543	38.7%
1988	4821	2007	41.6%
1989	5694	2263	39.7%

대한물리치료사협회 1989

* 확인할 수 없음

V. 고 찰

1. 문제점 도출

1) 물리치료사 양성에 대한 문제점

국내 물리치료사 교육기관은 1989년 현재까지 12

개교의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2개교가 설립되어 과거 1980년까지 17년동안 설립된 학교의 두 배 가량이 새로 생겨났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물리치료의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추세이나, 아시아의 선두 주자임을 자부하는 우리나라 수준이 유일하게도 2년제 과정을 고수하고 있음으로 해서 물리치료사의 질적수준의 하향에 대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물리치료 수습기관 수는 1975년 보사부장관이 지정한 총 58개소의 수습기관이 있었으나, 현재 지정된 수습병원이 13개소로 줄어들었다. 그 이유는 정규대학의 급증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며, 앞으로는 수습기관에 의한 물리치료사 양성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 되어진다.

한편, 물리치료사의 역할이 임상에서 환자를 직접 치료를 담당하여야 하는 전문직임을 고려하여 볼 때 현 우리나라 물리치료 교과과정은 이론교육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실습교육이 절대 부족한 현실이다. 이는 세계 물리치료사연맹이 권하는 임상실습시간에 비하여 무려 1,304시간이, 일본에 비해 884시간이나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 질적인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은 정수경(1985)에 의하면 물리치료과를 입학한 학생들의 입학동기가 바람직하지 못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전공교과 내용이 너무 어렵다는 불만족을 나타내었고, 입학 전 물리치료에 대한 사전지식이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이 또한 2년제 학제에서 기인된다고 볼 수 있다.

2) 물리치료사 취업실태의 문제점

국내 물리치료사 취업실태는 1989년 현재 5,694명이 면허를 취득하였으며, 이 중 2,841명(51.7%)만이 협회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어 협회의 운영에 문제점과 회원들의 비협조를 여실히 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등록된 회원 중 2,263명(79.7%)이 취업되어 있으며, 활동하지 않는 대부분의 회원들은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취업 인원수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시에 가장 집중되어 있고 취업기관은 의원에 밀집되어 있다. 의원중에는 정형외과 신경외과에 비교적 많이 집중되어 있어 아직도 한정된 기관에 근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찬의(1982)에 의하면 우리나라 일부 물리치료사의 업무량에 대한 보고에서 1인 1일 평균 물리치료 환자가 16명이라고 하였으나, 성수원(1986)의 보고로는

22.29명으로 나타나 최근에 물리치료 환자가 급격히 증가되었음을 보여주는 한편 우리나라 물리치료사의 업무량이 너무 과중한 것으로 나타나 치료의 질적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는 미국 병원협회(1957)에서 발표한 물리치료사 1인당 1인 평균·적정 환자치료수가 15명이라고 보고한 것에 비추어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의 물리치료사 증원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1980년 국내에서 물리치료를 필요로 하는 의료기관 574개소 중 18.8%에서 취업되었으나, 1988년 물리치료를 필요로 하는 총 병의원 1,887개소 중 35.3%에 취업하고 있음을 보아, 취업하고 있는 병의원의 수는 증가하였으나 환자의 증가에 비하여 물리치료사의 취업율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결국 미취업자수도 10년전 보다 10배 이상 늘어나 있다. 그러므로 어떠한 제도적 대책이 없다면 실업자는 계속 증가될 전망이다.

2. 활용방안에 대한 대안

1) 효율적 물리치료를 위한 제도적 보장

① 물리치료 업무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1인 1일 평균치료 환자수인 22.29명을 적정 1일 환자치료수인 15명 선에서 제도적으로 업무량을 조정함으로써 환자치료의 극대화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하여 1일 적정 환자수를 도입함으로써 구미 선진국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취업율을 높이는 동시에 보다 양질의 치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② 물리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의 대부분이 만성 퇴행성 질환과 장애자들에 비추어 현 의료보험급여의 180일 제한규정은 마땅히 철폐되어야 한다.

③ 물리치료실 직제도 개편되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병의원 물리치료실이 일반 물리치료사와 책임자 한 사람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실장 이외의 승진 기회가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중간 관리자로서의 활용이나 능력을 실효 발휘하지 못하고 동기부여의 기회가 없음으로서 직무 만족도가 떨어지게 마련이다. 심지어 어느정도 경력을 쌓은 후 아예 물리치료를 떠나 전업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참고로 미국의 물리치료실은 보조치료사, 정치료사, 실장, 감독, 조정관, 중간 관리자(부장, 이사, 부원장 등)로 구성되어 있다.

2) 학제 개편

물리치료사 교육기관과 정원의 증가로 양적인 팽창

은 계속되고 있으며, 국가고시 합격율도 점차로 높아지는 추세이다. 이것은 학과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현상과 아울러 전문대학의 과 정원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어서, 양질의 교수요원 확보와 학생의 효율적인 지도에 어려움은 물론 실습교육을 충분히 습득시키지 못한다는 문제가 야기되므로, 대학의 정원을 조절하고 질적 향상을 위해 2년제 과정을 3년제 내지 4년제 과정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이러한 학제개편 없이 현 추세가 지속된다면 물리치료의 질적인 저하가 초래되어 결국 국민 건강관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3) 물리치료실 개설

지금까지 자료에 의하면 국내 물리치료 면허 소지자의 과반수가 활동하지 않는 상태에 있으며 더욱이 물리치료사 교육기관은 계속 증설되고 있어 2,000년대에는 실업율이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치료사의 생존에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보건전문 요원의 손실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물리치료실을 물리치료사로 하여금 자유롭게 개설토록 하여 인력 낭비의 감소와 환자가 편리하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지로 물리치료는 의사에 의한 진단 및 처방에 의해 결정되며 치료는 물리치료사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물리치료실 개설은 일정한 자격조건(예를 들어 의사의 처방에 의한 치료, 면허 소지자로서 경력 x년 이상 등)을 만들어 무분별한 개선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참고로 치과기공사, 조산원, 안경사 등은 단독 개설이 가능하다). 이러한 대안은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에 발맞추어 환자의 의료 접근도를 높게 될 뿐만 아니라, 의료기사 일부에게만 특혜를 주고 있다는 법의 형평성에 비추어 보아서도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한다.

4) 보건전문요원으로의 활용

최근 장애자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장애자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볼 때 사회복지 시책의 중요성이 더욱 절실해 졌다고 볼 수 있다. 보건사회부의 사회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장애자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전문요원이 절대 부족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은 물리치료사의 활용이 바람직한 현실적 대안 중의 하나로서 재활사업의 확대, 장애자 의료 서비스, 장애자 종합복지관 건립 등에 기존 물

리치료를 적절히 활용하여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1987년 현재 전국 249개 보건소, 1,312개 보건지소, 2,038개의 보건 진료소에 보건직 공무원으로 물리치료를 포함 배치하여 활용함으로써 재활의료 혜택이 필요한 주민에게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한다. 아울러 스포츠 물리치료, 가정방문 치료제도 등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취업의 활로를 넓혀 나간다.

5) 해외 취업

국내 물리치료사의 해외 진출은 해외개발공사를 통하여 중동지역에 취업되고 있는 공식 장구 외에는 극히 제한된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 호주, 유럽 국가로의 취업이민이 용이하게 되어가는 추세에 발맞추어 국내 가용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회, 학회, 정부 차원에서의 협력방안을 모색한다면 잠재 인력의 개발, 실업의 감소, 해외교류로 인한 물리치료의 질적 향상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VI. 결 론

1965년부터 1989년까지 국내 물리치료사의 양성 및 취업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대한 물리치료사협회에 등록된 회원들의 자료와 전국 물리치료교육기관 및 관련기관의 자료로 교육기관, 취업지역 및 물리치료사들의 제반 특성을 분석하고 도출된 문제에 따른 대안을 모색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1. 우리나라 물리치료 양성기관은 2년제 대학 12개교와 4년제 대학 2개교가 있으며, 보건사회부 장관이 지정한 수습기관은 13개소가 있고, 현재까지 총 7,721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다.

2. 우리나라 물리치료사 자격제도는 국가고시제로 매년 1회 시행되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2년제 학제를 채택하고 있어 물리치료의 질적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고, 교과과정도 이론에 비해 실습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3-4년제 과정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국내 물리치료사의 취업실태는 협회에 등록된 2,841명 중 2,263명이 취업되어 있고, 서울시에 가장 많이 근무하고 있어 타 지역과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의료기관별 취업율은 의원에 가장 많은 936명(32.3%)이 근무하고 있으며, 특히 정형외과, 신경외과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4. 국내 물리치료사의 양성 인원수는 1965년 이

후 계속 증가되고 있으나, 1988년의 취업률은 41.6%로서 큰 변화가 없다. 이것은 지난 10년간의 취업상태와 비슷하게 나타나 지금까지의 적정 인력수급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5. 지금까지의 문제점 도출에 따른 효율적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인 1일 물리치료 적정 환자수제를 도입한다.

둘째, 의원급을 포함한 외과계 진료기관에서는 물리치료실 설치를 의무화 한다.

셋째, 물리치료실 직제를 개편하며 치우를 개선한다.

넷째, 전문대학 2년제 과정의 신설을 억제하며, 기존의 2년제는 3-4년 과정으로 서급히 전환시킨다.

다섯째, 물리치료사에 의한 물리치료실 개설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보건직 공무원, 재활전문요원, 산업보건 관리자, 스포츠 조련사 등으로 가용자원을 적극 활용토록 한다.

일곱째, 해외취업의 활로를 적극 개척한다.

참 고 문 헌

1. 김모임 : 우리나라 보건전문 인력의 현황, 수요 및 교육,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1987.
2. 보건사회부 : 보건통계연보, 제 34호, 1988.
3. 대한물리치료사협회 : 서울시회 신입회원 연수교육자료, 1988.
4. 성수원 : 물리치료사의 업무량과 이에 관련된 요인분석,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1987.
5. 성수원 : 물리치료사의 직무태도와 영향요인과의 상관관계, 대한물리치료사협회지, 1987.
6. 박찬의 : 서울시내 일부병원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의 업무 효율성에 관한 실태조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1982.
7. 이강월 : 우리나라 물리치료사의 수급에 관한 연구, 우석의기대 2권 1호, 1971.
8. 이강월 : 한국물리요법의 발전사, 우석의기대 1권 1호, 1970.
9. 이강월, 이재학 : 우리나라 물리치료사의 교과과정 연구, 고려의기대 제 3권 1호, 1972.
10. 이강월, 이재학 : 우리나라 물리치료사의 양성실태에 관한 연구, 고려의기대 제 3권 1호, 1972.

11. 이재학 : 물리치료과 교과과정 개선에 대한 연구, 대한물리치료사협회지 제 7 권 1호, 1986.
12. 이재학 : 한국 물리치료사의 양성 및 취업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1981.
13. 장수경 : 물리치료과 학생들의 입학동기 전공학습 만족 여부 및 취업희망에 관한 연구, 대한 물리치료사협회지 제 6 권 1 호, 1985.
14. 장정훈, 장익선 : 전북 지역 물리치료사의 현황 및 업무 효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물리치료사협회지 제 9 권 1 호, 1988.
15. 함용운 : 물리치료과의 관리운영에 관한 연구, 대한물리치료사협회지, 제 2 권, 1979.